

임실군 중대형 사업 국비확보 겹경사

300억원대 노후상수관망 평지천 생태하천복원사업 50억원 생태탐방로 조성

임실군이 중대형 국비사업에 잇따라 선정되는 등 겹경사 소식에 지역발전 기대감이 한층 더 커지고 있다. 민선 7기 들어 임실군은 8월에만 308억원대 규모의 노후상수관망정비사업의 대상지로 최종 선정된 데 이어 '2018년 스마트팜 경영실습농장 조성사업 공모(12억원)'에도 선정되는 등 희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28일 임실군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관리지역(호남권.제주포함)중 유일하게 '2019년 환경부

신규사업'에도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평지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사람과 생물이 공존할 수 있는 하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하천의 생태적 단절구간의 하천 기능 복원과, 건강한 친수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 지역주민들과 섬진강 자전거 길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힐링 장소를 제공하는 것으로, 덕치면 사곡리에서 가곡리 섬진강 합류지점까지 하천 2.0km에 대해 2022년까지 생태여울 및 탐방로를 조성한다. 평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통해 어류가 자유롭게 이동하는 생태여울을 조성하고, 완충수립대, 식생정화수로, 생태호안, 생태거점지역 등을 설치하여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를 복원하며, 생태관찰, 생태탐방로, 생태마당 등도 조성한다. 심민 군수는 "평지천 복원사업이 완료되면 평지천과 섬진강의 생태 네트워크 연결로 하천의 생태적 기능 향상 및 휴식·여가·생태체험공간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지역주민과 탐방객들에게 평지천이 더욱 친근한 공간으로 다가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청년창업농 육성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한 '2018년 스마트팜 경영실습농장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도비 12억원을 확보, 청년 영농 창업 예비 귀농인 육성사업에 돌입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가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기계 구입 지원 '큰호응'

남원시, 쌀 생산비 절감위해 추진

남원시가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이 농업인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남원은 운봉·인월·아영·산내 등 지리산 고랭지와 중평야부, 송동·주생·금지·대강 평야부의 천혜의 지형을 갖고 있어 고품질 쌀을 비롯한 다양한 품질 좋은 농산물이 연중 생산되고 있는 영농 1번지이다. 남원시는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로 인한 일손부족을 극복하고 적기 영농을 위해 농업기계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32억원(보조금 10억원, 자부담 22억원)을

들어 콤바인, 트랙터, 곡물건조기, 승용이앙기, 곡물계량기, 집진기 등 13종 390대를 지원하고 있다. 농기계는 연중 전화나 방문해 사전예약하면 임대할 수 있고, 임대시간은 임대전날은 오후 5시부터, 당일은 오전 8시부터 가능하며 반납은 임대일 오후 6시까지이다. 이준무 남원시 농정과장은 "농기계 지원사업이 농촌 노동력 절감과 적기 영농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농업인들의 삶의 질과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매아리



최홍범 남원시장 치안현장 방문

남원경찰서 최홍범 서장은 지난 9일 산내 여름파출소를 시작으로 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현장경찰관의 노고치하 및 사기진작을 위해 관내 총 18개 관서의 치안현장을 방문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치안현장 방문은 111년만의 무더위 속에서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들의 상황에 공감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격의 없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또한 관내 주요 현안에 대한 파악과 앞으로의 남원경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었다. 최홍범 서장은 "현장경찰관의 활동은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작은 일에도 관심을 가지고 너와 나, 우리 가족의 일이라는 생각으로 신고 출동과 사건처리에 좀 더 신중히 임하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장난감도서관, 읍면까지 장난감 배달

순창군이 운영하는 장난감도서관이 읍면까지 장난감을 배달하는 행복서비스에 나섰다. 군은 오는 9월 4일부터 장난감도서관에 비치된 장난감 1,000여종을 면사무소까지 배달하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읍지역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쌍치, 북동 등 면지역 주민들이 아이를 양육하면서 읍에 위치한 장난감 도서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 맞춤형 사업이다. 영유아를 둔 부모들의 상황을 살필기 살핀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군 홈페이지나 휴대전화 앱을 다운 받아 신청하면 이동 장난감도서관 차량이 주 1회 해당 면사무소까지 방문해 이용하는 시스템이다. 배달차량에 여분의 장난감을 비치해 현지에서도 원하는 주민들이 바로 회원가입을 한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장난감 배달서비스 앱은 회원가입 후 다론티로드 받을 수 있다. 군은 이번 장난감도서관 배달 서비스 시행이 장난감 도서관 이용률을 높이는 것은 물론 면지역에서 어린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경제적



순창군 장난감도서관이 읍면까지 배달하는 서비스에 나서기로 했다.

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순창군은 올해 1월 장난감 도서관을 시작해 운영하고 있다. 355종 1,000여점의 장난감을 비치하고 있으며 장난감대여실, 액션볼놀이실, 북카페, 역할놀이실, 수유실 등을 갖추고 있어 부모들의 휴식처로서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8월 현재 누적방문자수가 11,427명에 이르고 장난감 대여건수는 4

천 300여건에 이를 만큼 인기가 높다. 황숙주 군수는 "면지역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장난감 도서관 서비스를 좀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달서비스를 개시한다"면서 "경제적 부담없이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선물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많은 분들이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 건축물대장 일제정비

순창군이 주민 편의를 위한 건축물대장 일제정비에 들어갔다. 군은 이달부터 지적재조사 결과를 반영한 건축물대장 유지관리로 공부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직권정정이 가능한 서비스를 통해 주민 불편 해소와 행정신뢰도를 높여갈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군은 먼저 읍지역은 건축법 시행(1962.1.20.) 이전 면지역은 1992년 5월 31일 이전 건축물에 대해 지방세징정정보시스템의 재산세 과세대장을 근거로 건축물대장에 이기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순창읍과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면소재지와 고속도로(100m 이내) 및 국도(50m 이내) 주변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1992. 6. 1. ~ 2006. 5. 8.이전 건축된 연면적 200㎡미만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주가 현황측량 성과도를 제출하면 군에서 현황도를 작성해서 건축물대장을

만들어 준다. 또한 지난 2013년 4월부터 실시한 지적재조사 결과에 따라 바뀐 대지면적과 건물용, 용적률 등은 건축물대장을 정정해 주기로 했다. 군은 이와 관련 건축물대장 관리계획을 지난 8월 9일에 읍면에 시달하는 등 본격적인 건축물대장 등재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읍면사무소에서는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축물에 대한 현황을 조사 중에 있다. 군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이 건축물에 대한 재산권 행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건축물 현황도면 작성서비스는 특히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맡고 있는 업무분야에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을 발굴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승강기 사고대응 훈련 실시

임실군은 28일 군청 1층 로비에서 승강기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실전 같은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 훈련'을 실시했다.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은 승강기 갑갑사고 발생 시 초기대응 능력 및 신속한 인명 구조 활동을 위해 마련

됐으며, 박진두 부군수를 비롯한 임실 119안전센터,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관내 승강기 관리주체 및 안전관리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박진두 부군수는 "이번 훈련을 통해 승강기 사고·고장 시 신속한 초기대응 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던 좋은 기



회였다"고 전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민원상황별 매뉴얼 배부

남원시는 시민에게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 직원들에게 '민원상황별 응대 매뉴얼'이라는 제목의 책자를 제작해 배부했다고 28일 밝혔다. 남원시의 응대 매뉴얼은 민원인에 대한 바람직한 친절서비스 방향을 제시하고, 민원 대처능력을 향상하여 고객 만족 서비스 실천 지침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작했으며, 민원처리 과정에서 겪는 상황을 세분화해 각각의 응대요령을 유형별로 정리, 단계별 처리 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책자에는 방문 및 전화민원 응대요령, 특이상황별 응대요령, 알아두면 유용한 팁, 관련법령 등을 상세히 기술해 실제 민원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류홍성 총무과장은 "친절은 민선7기 운영의 핵심 가치이자,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며, 이번 매뉴얼 제작을 발판삼아 더욱 능동적이고 친절한 자세로 시민에게 사랑받는 남원시청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된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